한 학기 동안 배운 것 한가지와 배우기 어려웠던 것 한가지를 각각 제출하시오

배우기 어려웠던 것 한 가지는 트라우마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. 일단 이 수업은 과제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는데, 우선 용산 참사나 쌍용 자동차 노동자 폭력 진압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,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. 그렇게 자료조사를 시작했는데, 공식적인 입장은 모호하고 사실이라 하는 여러 입장들이 있어서 입장을 취하기 애매했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기 보다 내가 철거민의 입장이 되어서 글을 써 보았습니다. 또한 수업 내용 중에서도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인터뷰가 나올 때 힘들었습니다. 그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가히 어느 만큼인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“나는 수학 트라우마가 있어” 는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트라우마의 조건을 다 만족하면 그도 트라우마로 성립하는 지도 궁금합니다.

한 학기 동안 배운 것 중 제게 깊은 깨달음을 준 한 가지는 5차시 불안에 관하여 수업이었습니다. 사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나긴 수험생활 이후 주기적으로 우울에 빠졌는데 과제내용(완벽하지 못한 스스로를 바라본 기억)을 하고 제 자신에 대해 또 한 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5주차 과제 때 (완벽해지기를 바란 이유)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대충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. 자라온 환경의 탓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또한 그게 풀리니 왜 내가 엄마한테만 쩔쩔맬까 라는 의문도 조금은 풀린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닌 건 아니다, 싫은 건 싫다, 이건 불공평하다... 최근 달라진 점은 원래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했는데 (엄마는 직장을 다니셔서)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점차 다른 식구들도 제가 당하는 불공평함에 대해 귀 기울여 주기 시작했습니다.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짧은 인생이지만 저에 대해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삶을 살았는데 마음 수업 덕분에 제가 왜 이런 아픔을 갖는지, 왜 취약한지, 원인은 뭔지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!